

위기 감지한 단장들 “가을야구 판 키우자”

상위팀과 2경기차 이내엔 '1승+'
준PO·PO 게임수도 변화 불가피
규정 복잡해 '업셋' 길 막힐 우려
하위팀 '저주기 논란' 불거질수도



KBO리그 각 팀 단장들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는 최근 포스트시즌 운영방식 개선안에 대해 협의했다. 단장들은 관중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위기의 시작이라고 공감하며 여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포스트시즌(PS) 제도가 또 한 번 변화 앞에 섰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큰 뜻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선일까 개악일까.

KBO 실행위원회(단장회의)는 최근 부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프리에이전트(FA) 제도 개선부터 KBO리그식 사치세 등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여기에 PS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골자는 순위 싸움 중요성 강조다. 정규시즌 2, 3위 팀이 그 상위 팀과 2경기차 이내로 시즌을 마칠 경우 첫 PS 라운드에서 1승을 안겨준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로 대입하면 정규시즌 2위 SK와

제 준PO, PO가 4전3선승제로 바뀌게 된다. 정규시즌 순위는 물론 경기차의 가치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의도다. 순위가 열추 정해진 시점에서 상위 팀은 2경기차 이상으로 벌리기 위해, 하위 팀은 2경기차 이내로 좁히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KBO리그가 위기라는 대전제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리그 전체가 2020년 800만 관중 재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만일 2연속시즌 이에 실패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규시즌 막판까지 팬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PS 제도 변경안까지 꺼내든 것이다. A팀 단장은 26일 “PS 제도 변경안이 나왔을 때 단장들끼리 논의가 상당히 빨랐다. 이사회 최종 결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구단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여론은 곱지 않다. 우선 규정 자체가 복잡해지는 건 분명하며, ‘업셋’의 길이

막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저주기 논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PS 탈락이 조기에 확정된 하위권 팀들은 오래 ‘리빌딩’을 표방하며 젊은 선수들 위주의 기용을 하는데, 상위 팀들간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질 시점에는 이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B팀 단장은 “저주기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 팬들이 편한 얘기를 하진 않는다”며 “우리가 야구인들이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가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성했다. C팀 운영담당 역시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됐을 때도 비판이 많았지만 정규시즌 막판까지 긴장감이 유지되는 효과를 체험했다”며 “이번 제도도 분명 단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장점이 많다면 적극적인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LG 진해수

진해수 3년 총 14억 재계약 LG, 집토끼 모두 잔류 시켜

좌완 투수 진해수(33)까지 붙잡았다. LG 트윈스가 올 겨울 내부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대상자인 3명을 모두 팀에 잔류시켰다.

LG는 26일 “진해수와 계약기간 3년(2+1년) 총액 14억 원(계약금 3억 원·연봉 및 인센티브 11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소 스포츠리스트 카드까지 품퐁히 챙겼다. 새 시즌 김지용, 정찬현 등이 부상을 털고 복귀하는 점을 고려하면 LG로서 필조 자원을 두둑하게 확보해둔 셈이다. 진해수도 “다음 시즌 준비를 잘 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일찍이 잔류에 대한 교감은 충분히 나눴다. 하지만 세부 계약 내용에 서로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앞서 체결한 송은범(2년·10억 원), 오지환(4년·40억 원)과의 계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20일 오지환과 FA 계약을 마무리 지은 LG는 같은 날 진해수와 의 최종 협상도 낙관했다. 하지만 금액에 관한 의견차이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했고 계약서를 완성하는데 일주일가량이 더 소요됐다.

팀 내 진해수의 기여도는 적지 않다. 특히 좌완 원 포인트 투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LG 류종일 감독에게 활용도가 꽤나 높은 카드다. 진해수는 2019시즌에도 72경기(42이닝)에 나서 평균자책점 3.43에 20홀드를 달성하며 쓸쓸한 활약을 펼쳤다. 덕분에 정우영, 고우석 등의 우완 구원 투수들과의 균형도 적절히 맞췄다. 차명석 단장 역시 “진해수는 팀 불펜의 핵심 전력인데다 후배들이 배울 점이 많은 선수”라고 치켜세우며 “앞으로도 투수진에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중심을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비 시즌 핵심 과제를 모두 해결했다. 내부 FA 대상자 전원과 계약을 이끌어내며 전력 누수를 최소화한 LG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박상원 “멀티이닝 소화능력 더 키우겠다”

(한화)

1월부터 시즌 준비 돌입 의지
“내가 잘해야 한화 불펜도 강력”

우완 박상원(25)은 한화 이글스 불펜의 기둥이다. 2017년 입단해 내년이면 프로 4년차다. 지난해 69경기(60이닝)에 이어 올해 61경기(59이닝)에 등판했다. 이 기간 중 불펜으로만 활약한 팀 내 투수들 중 가장 많은 119이닝을 소화했다.

성적도 뛰어난 편이다. 지난해에는 4승 2패9홀드, 평균자책점(ERA) 2.10이었다. 올해는 1승4패12홀드, ERA 3.97이다. 공인구 교체로 올 시즌 ‘투고타저’가 기승을 부린 점을 고려하면 아쉽지만, 전반기 4.15였던 ERA를 후반기 3.45까지 낮춘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결과이니 아쉬움은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인 그는 지난 가을 마무리훈련에서 과거와 달리 많은 공을 던졌다. 1군 주력 투수들은 대개 피칭을 최소화한 채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불펜피칭으로 많이 던지는 날에는 하루 100개도 소화했다. 선발투수가 아닌 불펜투수라 더 허를 내두를 만하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많이 던지면서 스

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선발투수도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무작정) 던져봤다. 힘이 빠졌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도 싶었다.” 한계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게 마련인 단점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더 있다. 박상원은 “내게 부족한 부분이 멀티이닝이기도 하다. 멀티이닝을 소화하면 내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팀도 더 강해지니까”라며 웃었다.

올 시즌 그가 아웃카운트를 4개 이상 잡아낸 경기는 총 15경기였다. 지난해는 12경기. 등판횟수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이미 꽤 만만찮은 멀티이닝 소화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선발과 마무리를 연결하는 셋업맨으로서 좀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에 멀티이닝에 집착하고 있다.

멀티이닝을 새로운 목표로 삼은 그는 내년 2월 스프링캠프 전까지도 최대한 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쉬는 기간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공을 던지고 있다”는 그는 “1월부터는 바로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화 불펜의 버팀목다운 든든한 다짐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한화 박상원은 불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돋움했다. 셋업맨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품고 있는 그는 2020시즌 ‘멀티이닝’을 더욱 많이 소화하겠다는 개인 목표를 세웠다. 스포츠동아DB

‘작은거인’ 꿈꾸는 164cm 삼성 김지찬

기장 대회 맹활약 덕분에 삼성행
“10년 뒤 없어서는 안될 선수될 것”



삼성 김지찬

을 지명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 최근 스포츠동아와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어필했다.

-언제 처음 야구를 시작했나.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셔서 나도 좋아하게 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리틀야구단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했다. 생각해 보니 리틀야구단부터 중학교(이천 모가

중), 고등학교(라온고)까지 전부 창단한지 오래되지 않은 학교에 들어갔다.”
-드래프트 직후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다. 기장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존재감을 뽐낼 기회라고 생각했나.

“솔직히 그런 측면도 있었다. 드래프트에서 지명되고 나서 ‘키도 작은데...’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다 보니 솔직히 대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또 한국에선 사사키 로키(지바 롯데 마린스·최고구속 163km)처럼 엄청나게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승부해보지 못한 만큼 타석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대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작은 키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 적은 없나.

“정말 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키가 작지만, 큰 선수들보다 안타를 많이 치고 야구를 잘하면 된다는 마음가짐뿐이다.”
-입단하기 전에는 삼성을 어떻게 바라봤나.

“명문구단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했

다. 지명 받고 나서 깜짝 놀랐다. 솔직히 ‘지명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삼성에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정말 좋았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기장 내세우고 싶은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빠른 발이다. 하지만 프로 무대에는 나보다 빠른 선수들이 많을 테니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더 개발해야 한다. 번트와 스타트, 주루 센스 등 다양한 요소를 더 배워야 한다. 그리고 아직 파워와 송구능력 등 전체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

-2020시즌의 목표가 궁금하다.

“최대한 빨리 1군을 경험해보고 싶다. 잘해서 신인왕도 타면 좋겠지만,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더라. 마음 비우고 잘하겠다.”

-10년 뒤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

“삼성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고 싶다. 꼭 그렇게 하겠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삼성 라이온즈 신인 내야수 김지찬(18·라온고)은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일찌감치 존재감을 각인했다. 지난 9월 기장에서 막을 내린 2019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그라운드를 중황무진 누빈 덕분이다. 164cm의 작은 키의 단점을 디테일로 보완하며 타격·수비·도루상에 올스타까지 휩쓸었다. 당시 8경기에서 기록한 성적은 타율 0.531(32타수17안타), 1타점, 10득점, 9도루, 출루율 0.559로 대단했다. 피지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단숨에 기대로 바꾼 것은 물론이다. 삼성이 2020시즌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전체 15번)의 높은 순위로 김지찬